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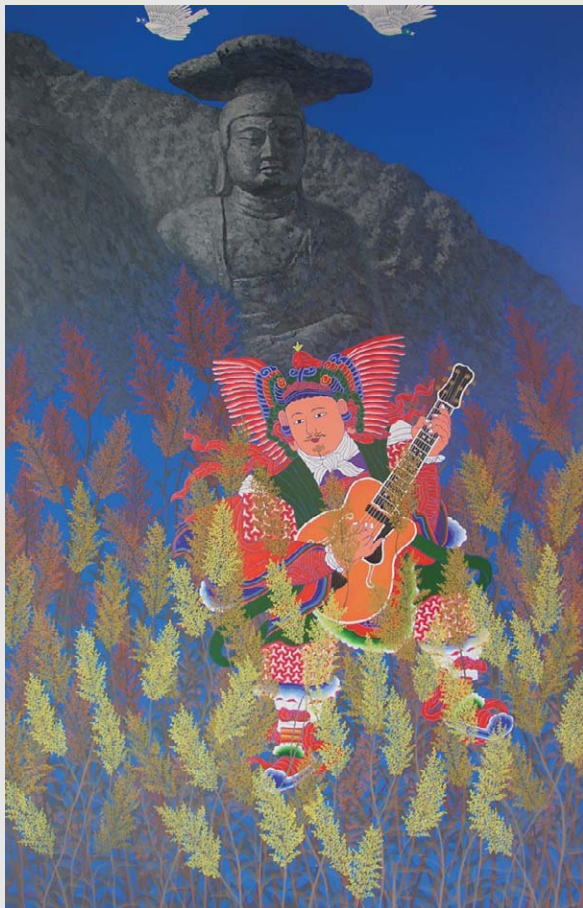
# 음반 '세속에서의 명상' 발매

## 명상음악가 홍순지 네 번째 노래

'참 모습 깨닫고 보니 부처와 조 사 어디 있는가. 몸속에 하늘과 땅 본래 갖추어 있으니 몸을 뒤쳐 사 자후 하노라.'

명상음악가로 친숙한 홍순지(불 국사 합창단 지휘자)씨가 4집 음반 '세속에서의 명상'을 발매했다. 불 교 색채 가득한 가사에 그만의 청 아한 장법이 어울려 선가의 초연함 을 노래한다. 성림월산(聖林月山) 스님의 선시에 백경운이 작곡한 오 도송(悟道頌)을 포함해 총 12곡이 수록됐다. 음악을 통해 깨달음을 갈구하는 소망이 잔잔한 바람을 따 라 초연하게 펼쳐진다. 수도자의 율모습처럼 쓸쓸하지만 그의 발걸 음은 거침없이 당당하다. 지 미디 어 (054)775-4888 가연숙 기자

# 이김천 '꽃이핀다'展



11월 30일까지 이김천스튜디오갤러리서

신장(神將) 동진보살(東進陀天)이 통기타를 연주한다. 호법 신장이 불법을 수호하는 지혜의 칼 대신 나팔을 불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갈대밭을 거닌다. 11월 1~30일 종북 음 성에 위치한 이김천스튜디오갤러리에서 이김천 작가의 '꽃 이핀다'展을 통해 낭만보살을 만난다.

작가는 영웅호걸의 시대가 아닌 소인배들이 작은 행복을 추구하며 만족하는 세상을 노래하는 장군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러한 신장의 연주에 행복한 세상을 그려 낼 것이라는 희망을 담아 평화를 발원한다. 감투와 투구를 쓴 미소년의 음악회가 무명을 잘라내는 지혜의 검이 되어 반야 의 향기로 퍼진다. (043)872-2135 가연숙 기자



## 문자, 감정과 대화하다! 이모

그래피 (emography, emotion+graphy) 창안자 무산 허회태 (52·사진) 선생은 서·화·각(書·畫·刻) 예술인생 47년을 기념해 11월 4~10 일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전관에서 '이모그래피'展을 연다. 사물을 본떠 관념화된 문자가 아닌 감성을 나타낸 흔 적을 의미하는 이모그래피는 8m 높이의 작품 '108번뇌불(煩惱佛)'과 '역만 부처佛'로 관람객의 시선을 압도한다.

"농담의 균열이라고 표현 하지요. 부 처 불(佛)자를 중첩해 하나의 거대한 '佛'자로 창작한 작품입니다. 화선지를 천만번 이상 말리고 또 말려서 기운이 생동하는 이모그래피가 완성됐습니다."

# 생동하는 重重無盡의 佛세계

허회태 서·화·각 '이모그래피'展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서 11월 10일까지

그는 회화의 형태와 설치 의 입체 그리고 획의 서 예가 지닌 한계를 극 복하고 이들의 장점만 을 결합해 속성의 본 질로 다가가고자 했 다. 이는 '하나가 곧 일체이고 일체가 곧 하나'라는 화엄의 중중무 진(重重無盡)한 법계 연 기관으로 통섭된다.

"재독 미술평론가 류병학은 '그의 용 필은 대담하면서도 천진난만합니다. 거 대한 붓으로 종이에 긁는 장면을 떠올리 니 마치 칼끝이 모래를 밀고 나갈 때 칼 과 모래의 마찰음이 손과 팔뚝을 통해 가슴에 와 닿는 듯합니다'라고 평했다. 허회태 작가는 어머니의 불심이 본인 의 작품 세계로 물들었다고 말한다. 동 양미술사 100년을 회고할 때 왕의 곁에 는 항상 명필가가 있었다. 그러나 기술 자로 전락한 현대 서예가의 초상을 체현 한 작가는 보물창고 안의 서예를 일상의 광장으로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붓질의 감성을 현실화 시키는 독보적인 이모그 래피의 세계를 선보였다. "세상만사는 공(空)인데 나를 버리고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화두를 던 졌습니다. 그것이 작업 세계의 단초이자 공의 세계로 도달하고자 하는 과정이 됐 습니다."

허회태 작가에게 이모그래피의 극대 화는 세상의 감성을 자극하는 가장 예술 적인 감흥이다. 그 속에 사람에게 감동 을 전하는 철학을 농축하고자 한다. 이 러한 작가의 의도가 구현된 작품이 바로 '108번뇌불(煩惱佛)'과 '역만 부처佛' 이다.

"집중이 어려울 때는 <반야심경>을 독송합니다. 작업에 몰입해 무아의 세계 를 경험하다보면 아랑이가 같은 삼매가 피어나는데 이때 모든 에너지를 작품에 담습니다."

한화사 집안에서 태어나 5세부터 한 학을 시작해 중학생 때 효당 김문옥 (1901~1960) 선생에게 아호 무산(茂山) 을 받은 허회태 선생은 38세에 국전 대 상을 수상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전각예술로 읽는 <반야심경>과 22점의 도자기 그리고 생활속의 이모그래피 시 리즈(한복·가구) 등은 획일화된 감성을 재창출하며 만물의 숨결을 응축해 드러 낸다. (02)588-3324 가연숙 기자 ornflower@buddhapia.com



# 지당 박부원 도공 고희 기념展

11월 6일부터 이천세계도자센터

'자연은 자신의 역사를 바위에 새긴다.' 지당 박부원(도원오 대표) 도공 은 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들어 온 외길 인생 46년을 기념한 도예전 을 연다. 11월 6~30일 이천 설봉 공원내 이천세계도자센터에서 회고되는 도예의 여정이다.

도자기가 지닌 전통미를 재현하 고 시대감각에 맞는 현대도예를 연구해온 선생은, 1960년대 전승 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해 1970년 대 도원오(陶元鰲)를 설립, 한국전 통전승도자계의 원로로서 한국도 자의 정신을 계승하고 개척해왔다. "백자 가운데 순 백자가 좋습 니다. 그중에서도 조선조 18세기 를 전후해 광주분원 금사리 가마 에서 많이 만들어진 달항아리가 더욱 좋아요. 수백 년이 지난 오

늘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 는 이유는 분명 삶의 흔적이 항아 리에서 느껴지기 때문이겠지요."

박 선생의 '백자달항아리'는 조선시대 소박하고 정밀한 풍류 의 정수를 담은 대표작으로 꼽는 다. 원형에 가깝도록 둥글게 말아 율린 그릇 모양과 투명한 우유 빛 유약이 마치 달을 연상시킨다. 우 리민족의 정신을 맑고 너그럽게 투영해낸 소박한 흙속의 진실과 만나보자. (031)766-4476 가연숙 기자

#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현대불교건축 조명'

사회적 소통 공간으로서의 건축 모색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강 동균·김용환)는 11월 1일 부산 안 국선원에서 '현대한국불교건축의 방향과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제 6회 추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 다. 한·중·일 건축가 및 관계 전 문가가 모여 불교사원의 기능과 역할·건축 재료·생활양식을 재 조명하는 자리였다. 불교 건축이 현대인에게 인락하고 편안한 휴식 의 장을 제공하고 시대의 건축문 화에 부합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모색이다.

신영훈(한옥문화원) 원장이 '전 통건축에서 본 현대 한국 불교건 축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 는 등 '현대불교건축의 새로운 모 색-사회적 소통공간으로서의 현 대불교건축'을 발표해 현대 불교 건축의 문제는 동아시아 전체의 공통과제임을 시사했다. 이번 국 제학술회의는 범어사, 통도사, 부 산 교수불자연합회, 현대불교연구 원, 고신정사, 부산불교실업인회가 후원했다.

이상연 기자

구독신청·기사제보 | 02-2004-8200

#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4주년 BEST 추천도서

인터넷불교서점 **붓다북** www.buddhabook.co.kr



지면에 나온 도서는 붓다북 (02-953-7181)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빛을 주는 **티베트 사자의 서** 오리온북

죽음의 시가에만 행해지는 매우 가치 있는 실용서의 초대. 우리는 죽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다시 태어난다.

20세기 초반 서구 사회에 처음 소개된 후로 학자 와 종교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독자들에게도 비상 한 관심을 받아온 고전 (티베트 사자의 서)가 국내 최초로 본래의 형태인 듣는 책(오디오북)으로 재 작되었다. 생사의 업을 끌어낸 모든 생명에게 건 리의 빛을 비추어 해탈의 길로 이끄는 이 공경의 기도를 불교방송 DJ 정복 스님의 맑고 따뜻한 음성으로 전해 듣는다.

오디오 CD 3장, 낭송 대본 포함 / 값 18,000원 **정복스님** 강사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

케이블TV '산성 할아버지의 신서 사고'로 '한문이야기'로 방영된 한문과 천자문, 그리고 불교이야기를 풀어낸 바로 그 책

이 책은 붓다의 가르침으로 보는 이야기 천자문이다. 천자문을 기초로 해서 사자나 풀이 방법이 아닌, 본연의 나를 찾는 깨달음을 경문으로 풀어낸다. 한자의 구성과 그 본연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야기와 예문,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등을 인용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참 나를 찾는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보는 천자문 이야기는 깨 달음으로 가는 해탈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준다.

천명일 저 | 신국판 | 64쪽 | 값 18,000원 | 값 25,000원 **지혜의 나무**

**절로 가는 길**

절이 지닌 의미와 깨침의 미학

심신수양의 모든 감정과 마음까지도 환히 깨닫는 절 이야기

사찰은 본래 우리 내면의 각성세계를 밖으로 잘 드러내 놓 은 것이다. 사찰의 안과 밖의 참 모습을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만나게 되듯 지극히 편안한 마음으로 안내하며, 사찰의 구조 적 풍경과 모든 조형의 조각물들이 모두 문화를 보여주고, 형체 의 도상이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로 들려 우리를 깨달음의 세 계로 안내해 준다.

천명일 저 | 신국판 | 597쪽 | 값 20,000원 | 신국판 양장본 | 597쪽 | 값 28,000원 **지혜의 나무**

정찬주 장편소설 **천불탑의 비밀**

인생의 의미와 미법의 동단절 필치는 소설. 최연호 우리들의 가벼워진 삶에 의문을 던지는 소설. 산성원

천불탑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동안 우리는 어느덧 비밀을 찾아 떠나는 주인공이 되어, 때로는 가슴 조 이고 때로는 강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흥미진진한 천 불탑의 비밀 속에 빠져든다.

저자 정찬주 A5판·322면·값 10,000원

도서출판 **클리어마인드** (02)2198-5151

계율학강요(戒律學綱要) | **행복한 믿음으로 가는 길**

대만 법고신사 개산조 성명님의 대표작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계율에서부터 시작하 야 한다. 이 책은 일상생활 속에서 계율의 근본정신을 강 조하여 계율조항의 틀에 박힌 대로 사수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않았다. 사상적으로 부처님의 근본교 의를 통하여 시대의 문화정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 함은 바로 시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최 대한 효율에 넘으로써 불교의 시대정신을 배양하고, 매 사 람들로 하여금 승단계도를 정리하고 사명(死命)을 갖는 새로운 시대의 불교정신이 되도록 한다. 사상 또한 모두 이 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불교의 새 시대문화라는 거 대한 변화의 물결을 모을 수 있다. 이러한다면 불교 내외 의 단합하고 잠복된 일체의 관습과 사상 등을 돌파하지 못 할 것에 대한 열려도 없지 않다. - 서평

정명환 저 | 眞日 양장본 | 신국판 | 704면 | 값 15,000원 **도서출판 하늘북**

**생활 속의 명상수행**

빠알리대장경 앙굿타리니까야 앤 솔로지

이 책은 기본적으로 감각적 욕망에 물들어 있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생활을 실천할 것인가. 출가수행자와 재가신 자에게 꼭 되는 일상의 관습에 대한 통찰을 풀어주는 책이다.

정재성역주 | 653쪽 | 신국판 | 값 30,000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쌍웃따리니까야 앤솔로지 개정증보판

<쌍웃따리니까>에 실린 2,880개의 경 가운데 유혹한 180개의 경절을 골라낸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시각으로 문제가 되는 화두를 절 문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쌍웃따리니까야와 제자와의 대화를 담 은 역사적 기록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고 경전 전체를 활주로 만들었다.

정재성 역주 | 신국판 | 665쪽 | 값 30,000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마음 깨침**

불교텔레비전 무상사 큰스님 초청법회 법문집

이 책은 불교텔레비전에 속해있는 무상사(無相寺)에서 3년 11만불자를 위해 초창한 큰스님들의 생동감 넘치는 법 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큰스님들의 구도정신(求道精神)이나, 종교가 지니는 가치, 종교생활을 마친 태도, 세상을 바르게 사는 이치 등이 쏟아져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20인의 큰스님이 들려주는 법문의 핵심은 마음을 잘 다스 려라다. 오늘날 자신의 주인이 나됨을 잃지 못하고 해고고 있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수산 저 | 신국판 | 433쪽 | 값 18,000원 **휴먼앤북스**

**간화정로**

간화선을 말한다

박승사 박승선원 禪會 교재 **간화정로**

간화선의 정수 精髓

지리산 박승사 박승선원에 인가중인 월암 스님의 간화선 수행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간화선 지침서'로 간화선에 대한 명철한 이해와 코람시인 수행 자의 삶이 선배 수행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

저자 월암 스님 신국판 양장·512면·값 18,000원

도서출판 **현대북스** (051)244-1251